

2019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개최      짝 이제부터 시작이다

## 도시시스템 선진화...글로벌 시민의식 키우자

광주시가 2015년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국제도시이자 스포츠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대규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속도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치만 해놓고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따른 남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202개국 2만여명 장기 체류...친절·질서 '국제매너' 보여줘야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은 지난 4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이다이빙과 수구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채택된 하이다이빙은 남자 27m, 여자 20m 높이의 다이빙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종목으로 보는 이들을 짜릿하게 하는 최고 인기 종목이다. 워낙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종목인 만큼 수영연맹의 시설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실사단이 "만족스럽지 않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사고없는 안전한 대회운영을 위해서라도 시설 보완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 안정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과

함께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특급호텔 건립, 3500세대 규모의 신규 선수촌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인적 인프라 부분에선 성공 개최의 열쇠가 될 12만 자원봉사자 육성·관리도 중요 과제다.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U대회,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을 연계해 상생발전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202개국 2만 여명에 이르는 수영선수들과 심판·임원진, 기자단 등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민들이 '국제 매너'를 갖춘 최고의 선진 시민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특히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세계수

영선수권대회는 대회기간이 두 배 이상 긴 최소 26일로, 선수단의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광주시민의 친절의식 함양이 대회 성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십 년간 추진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단 주정차,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불친절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 선진화도 꼭 개선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운전자의 친절교육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주는 대신 상습적인 불친절 운전자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해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도가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까지는 6년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간인 2015년에 국제종합경기대회인 U대회가 열리는 만큼 올해부터 '업그レード 광주 만들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기초질서 지키기와 자원봉사 12만명 육성 등을 통한 광주시민 기초 영어회화 익히기, 대중교통 불친절 근절, 도시 미관 정비 사업 등을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안기석 광주시 체육U대회 지원국장은 "민중·광화·인권 도시 광주에 걸맞게 시민은 물론 도시 시스템을 선진 국제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대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개국의 선수들이 광주에서 감동을 안고 간다면 국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hucky@



목욕 속 연주 삼매경      여름방학이 시작된 22일, 광주 남구 방림동 송의중학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정의 나무 그늘에 앉아 연주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체부 '보증서 위조' 수사의뢰

"수영선수권 재정 지원 없다" 재확인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보증서 위조(가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유치위원회를 수사 의뢰하고 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정부와 광주시간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 은 22일 서울 문체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당시 최종 신청서에는 정부 보증서 원본이 들어간 만큼 계속 유치 활동은 하되 그 과정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하고 유치 이후에도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유치위에 공식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국장은 "오늘 오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대상은 유치위원회 관계자"라면서 "이는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재

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지난 2월 말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명의로 광주시에 발급해 준 서류와 광주시가 4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서류를 비교하면서 "단순히 사인을 가필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첨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치위 직원을 조사했는데 '건설업 업체에서 유리하다고 조인한 내용에 따라 바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위조 발견 당시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조된 보증서를 발견한 직후 (광주시에) 유치철회를 요청했으나 열성을 다해온 광주시민과 체육인들을 고려,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치 여부가 결정나는 7월 19일 이후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 공공기관 8곳중 1곳 지방대 출신 채용 '제로'

41곳, 작년 1명도 안 뽑아  
全공공기관 절반 가까이  
30% 가이드라인 안지켜

허리가 휘어도 지역 학부모들이 수도권 학교로 아이들을 입학시키려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8곳 중 1곳이 수도권의 지방 학교 출신 취업 희망생을 1명도 합격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지역인재 채용 인원수는 7561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인원인 1만4864명 중 50.9%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집적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재학·휴학 중인 사람들의 의미한다. 전체 공공기관 취업자 중 수도권 외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8.4%를 시작으로 2009년 58.3%, 2010년 54.2%, 2011년 52.9%로 매년 하락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에는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수준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대 채

용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127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43%에 달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회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41곳은 지난해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비수도권 인재를 1명도 뽑지 않았다. 8곳 중 1곳이 비수도권 출신을 뽑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부는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는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인 민중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청년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셀비오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라가 조명인자를 폭발적으로 켜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셀비오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알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 백기 동성  
주름개선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성분

HERA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유효성분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